

[외교·안보 영역: 발제3]

북한군 신세대 등장과 사회적 함의

-군인 ‘고난의 행군’ 세대가 김정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제자] 김광진(대원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발제>

북한군 신세대 등장과 사회적 함의
-군인 ‘고난의 행군’세대가 김정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광진(대원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I 서론

II 시대구분에 따른 북한군의 역사적 변천

- 1) 김일성 시대: 인민의 군대에서 수령의 군대로 성격변화
- 2)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내막-개인주의 발생에 따른 대응강화
- 3) 김정은 시대: 군 기강 해이

III ‘고난의 행군’세대의 특징

IV 군 신세대 등장 - ‘고난의 행군’세대

V 결론

I. 서론

1990년대에 들어 세계적 냉전체제가 종결됨에 따라 북한은 체제위기를 맞았고 1994년 7월 8일에는 북한체제의 구심점으로 인식되어 왔던 김일성이 사망하였다. 동시에 겹쌓인 자연재해와 심각한 식량난은 수백만명의 아사자를 낳았다. 북한은 이시기를 ‘고난의 행군시기’라고 부른다. ‘고난의 행군’은 1996년 당, 군, 청년보의 공동사설에서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자’라는 구호를 통해 최초 제시됨으로서 발기되었으며 이후 ‘고난의 강행군’(97년), ‘최후승리 위한 고난의 강행군’(98년) 등으로 강조되었다¹⁾. 북한이 이

1) 이후 북한은 역대 ‘고난의 행군’에 대한 역사적 개념을 정리하면서 김일성이 1938년 12월부터 39년 3월까지 중국 몽강현 남패자(현 길림성 정우현)에서 압록강 연안 장백현까지의 100일간의 행군을 ‘첫 번째 고난의 행군’, ‘56년 8월 종파사건을 전후하여 천리마 운동이 전개던 시기까지를 ‘두 번째 고난의 행군’, 그리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를 ‘세 번째 고난의 행

시기를 현대사에 기록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로 규정한 것은 체제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반증이다.

‘고난의 행군’시기 경제난은 북한사회에 개인주의 양상과 물질주의 의식을 확대시켰다. 이는 사상의 변화와 동시에 집단주의를 와해시키는 요소의 침습을 의미한다. 북한 체제유지의 최후 보루인 군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90년대 중반부터 식량난으로 군인 탈영병이 생기고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 군부대 주변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흠치는 병사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2001년과 2002년에 병영을 탈출한 북한군인의 수가 1만 5천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북한군의 생활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²⁾.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과정에 김정은 시대의 등장과 함께 ‘고난의 행군’세대가 북한군의 신세대로 전면 등장하였다. 따라서 북한군 신세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것은 북한의 군대가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북한군의 세대교체에 따른 신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변화된 신세대의 개인주의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그에 따른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군 신세대의 특징을 도출해내는데 중점을 둔다.

II. 시대구분에 따른 북한군의 역사적 변천

군대는 한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며, 다른 나라와 전쟁 및 전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며, 통상 활동 영역에 따라 육군, 해군, 해병대등으로 나뉜다. 군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여 전투 조직과 전투 지원 조직, 그리고 이들을 구성하는 인력, 장비, 병참, 훈련, 시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되며, 군대의 효율성은 이들 조직들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군대는 합법적 권력 기관이라는 점에서 준군사조직과 다르며, 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경찰 같은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 기관과 대비된다³⁾.

그러나 북한 군대는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기 전에 수령의 군대로서 소수 권력층의 안전을 지키는 정치 수단이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사를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방력강화에 필요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것이 선군정치라고 한다⁴⁾. 군을 정치 전면

군’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정신」 국가정보원, 2009년, 국회도서관 전자자료, 2013년 5월 7일.

2) 김광진 「남북한 병역제도의 현황과 통일 후 개선방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비전연구회 『통일세대 상상력의 공간: 남북한의 이해와 통일세상 만들기』 2012년, p8.

3) <http://ko.wikipedia.org/wiki/%EA%B5%B0%EB%8C%80> 「위키백과」 2013년 5월 25일자.

4) 「백두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끝없이 강성번영할 것이다」 『로동신문』 2011년 4월 9일.

에 내세운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통해 첫째,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둘째, 내부적으로는 군대를 내세워 체제의 균열을 막아보려는 것이다⁵⁾.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 군대는 내부적으로 체제 균열을 막고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령의 군대로서 특징지어진다.

1) 김일성시대: 인민의 군대에서 수령의 군대로 성격변화

김일성시대에는 주석이 국가수반으로써 ‘일체의 무장력을 통수’하고,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였다. 북한군이 공식적으로 창건식을 가진 것은 1948년 2월 8일로 북한정권 창건일(1949년 9월 9일)보다 7개월이나 앞선다. 정권수립에 앞서 정규군을 먼저 창설한 나라는 보기 드문데 이는 김일성의 군사중시 사상과 남한을 의식한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창건초기 김일성은 북한군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형의 마르크스-레닌주의형의 군대”라고 규정했다⁶⁾. 또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군대, 스탈린식 소련의 선진적인 군사과학과 교범을 따라 배우는 군대라고 규정했다⁷⁾.

북한군은 1950년 6.25전쟁을 통해 조선노동당의 군대로 성격이 바뀌었고 1958년 3월 당 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를 더욱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60년 9월 노동당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은 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에 인민군당위원회라는 당 조직을 만들어 정치군관과 인민군지휘관을 동시에 참여시켜 당의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상호비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 이 시기에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완비되면서 군 내부적으로는 정치장교와 군사지휘관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갈등의 원인은 인민군지휘체계가 구조적으로 정치장교와 군사지휘관으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군당위원회가 군대내의 최고조직이며 단순한 협의기관이 아니라 집체적인 정치영도기관임을 밝힘으로써 당에 의한 군대의 지도를 분명히 했다⁹⁾.

1970년대 북한군은 체제가 공고화되고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당의 군대에서 수령의 군대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그 과정에서 군 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기구도 김일성을 위해 존재하는 하위기구로 전락하였다. 1976년 김일성은 군 지배력을 높이고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1948년 2월8일이던 군창건일을 김일성이 1932년 4월25일에 항일유격대를 창건했다는 4월 25일로 변경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군은 창건초기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5) 이교덕, 정규섭, 이기동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1-02, p3.

6) 『김일성저작집』 제5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년, p289.

7) 두병영 『북한군 위상 및 역할의 지속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김일성과 김정일체제의 당·군관계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009년, p91.

8) 두병영 위의 글, p93.

9) 두병영 위의 글, p97.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의 군대임을 표방했지만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북한에서 구축됨에 따라 수령의 군대로 그 역할이 변질되었다¹⁰⁾.

2) 김정일시대: 선군정치와 내막-개인주의 발생에 따른 대응강화

김정일시대는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인 국가 권력의 수반으로 군을 통수하고 방위체제를 지휘 감독하는 ‘강성대국론’의 가치를 내건 ‘전시형 국가병영관리기관’으로 출범하였다. 이 시대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부상하고 군대의 위상이 제고된 것이 주목할 점이다. 국가군사기관인 국방위원회는 1972년 북한의 개정헌법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하위 위원회로서 그리 높지 않은 위상을 갖고 있었지만 국방위원회위원장직은 국가주석이 자동 겸직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1992년 북한의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되면서 그 위상이 올라갔다. 또한 국방위원회에 대한 주석의 지도권한은 삭제되어 국방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앞에만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주권기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김정일, 오진우, 최광을 선출하였다¹¹⁾.

국방위원회에는 북한군부의 핵심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군수분야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김정일 시대의 대표적인 군사지도기관으로 위상이 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1992년 헌법 제111조)으로 전반적인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하고,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군사칭호의 제정과 군사칭호 수여, 그리고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할 수 있고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과거 국가주석이 갖고 있던 군에 대한 권한을 모두 물려받은 막강한 자리라 할 수 있다¹²⁾.

김정일시대 국방위원회의 강화는 군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졌다. 군 경력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일에게 군은 체제유지와 내부적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제수단이였다. 독재권력의 속성상 군부의 방향이 권력장악의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김정일은 군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잦은 부대시찰과 군에 의한 사회통제강화 등 군의 역할증대를 강화했다¹³⁾. 또한 북한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북한체제 유지에 군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민족의 존망은 그 민족 자체의 국력에 달려있고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담보하는 국력 중에 제일 국력은 군력이다. 설사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힘있는 나라와 민족이라 하더라도 군력이 약하면 외래 침략세력에게 먹히우고 사멸되지 않을 수 없다. 군력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하

10) 두병영 위의 글, p97.

11) 『조선일보』 2008년 9월 25일.

12) 김병조, 오금현, 「북한군부의 정치적역할변화와 전망」 『정책연구보고서』 97-12, 통권 제279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년, p13~14.

13) 이화춘 『북한선군정치하 군의 지위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년, p55.

는 제일 생명선으로 된다”고 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⁴⁾.

또한 군사력을 국가의 ‘제일국력’으로 강조하고 “군대에 우리식의 현대적인 무장장비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더 많이 생산해 보내주며 당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을 구현하여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위력을 발휘하자”고 주장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위하여 한 목숨바쳐 싸우자”고 김정일의 사병화가 북한군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병사가 사회변혁을 선도하는 혁명의 기둥”이라면서, “어제는 노동계급이 혁명의 선구자였다면 오늘은 총대를 짰은 병사가 인간개조와 사회변혁을 선도하는 혁명의 기둥이다”라고 하면서 전체 인민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온 사회가 병사와 한 마음을 이루자고 주장하고 나섰다¹⁵⁾.

김정일시대 북한군의 특징은 전군을 수령결사옹위,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깎차넘치는 수령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강조한 것이다. 김정일이 발기한 <오중흡7련대 칭호쟁취운동>은 전군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맡겨 인민군 장병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정신으로 준비시켜 인민군대를 최고사령관의 친위대, 결사대로 만들기 위한 집단적 혁신운동이라는 것이다. 수령결사옹위의 전형은 “리수복,¹⁶⁾ 길영조¹⁷⁾” 등 자기 한 몸을 바쳐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한 충신들이라고 하면서, “병사들이 누구나가 오늘의 리수복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길영조의 정신세계를 인민군대 안에 일반화”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인민군 장병들에게 리수복 찬송시를 애독시키고, 길영조 비행사 영화를 제작 정치사회화 시키면서, 이로 인해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깎 들어차고 인민군 장병들 속에서 수많은 육탄영웅, 자폭영웅이 배출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¹⁸⁾.

김정일시대 북한군의 역할증대는 사회일탈행위에 대한 통제영역까지 확대되었다. 북한 군부는 1993년에 인민보안성에 위임했던 군인 범죄자에 대한 수사권을 환수하고, 심지어 평양 방문 시 허가증도 인민무력부가 발급하는 등 군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인민무력부는 1994년에 평남 회창군 등 3개 군을 관할대상으로 편입시켰다. 이 같은 인민무력부의 권한확대는 곧 평양 인근이나 국경 등 특별한 치안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군부의 직접적, 물리적 행사가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996년부터는 과거 인민보안성이 시행하던 기차 내 검열과 철도에 대한 통제권도 군에 이양하여 주민의 이동을 감시하고

14)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필승보검」 『로동신문』 2003년 4월 3일.

10) 「정권수립 55주년 맞아, 경제건설 강조」 『로동신문』 2003년 4월 21일.

16) 리수복은 6.25전쟁 시 1211고지에서 불 뿜는 적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 진격로를 열고 수령을 보위한 18 살 꽃다운 나이의 육탄영웅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17) 90년대의 리수복으로 불리우는 길영조는 비행 도중 뜻밖의 사고가 생겨 불붙는 비행기에서 이탈하여야 할 상황에도 비행기가 그대로 추락하면 혁명수뇌부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탈출하지 않고 비행기를 바다 방향으로 조종하여 30살 젊음을 바친 비행사로 혁명수뇌부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한 목숨 스스로없이 바친 수령결사옹위의 자폭정신의 전형으로 묘사되고 있다.

18) 박용진 「선군정치가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논문, 2006년, p170.

수송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협동농장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군부에 할당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도 야기되고 있다.¹⁹⁾

그러나 북한군의 위상이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생활은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이는 군민관계의 악화로 나타났다. 군생활의 어려움은 특히 악화된 식량난으로 민간인 약탈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얘기다. 한부대가 마을을 지나가면 닭, 토끼, 개 등 남아나는 가축이 없다는 항의가 잇따르지만 군에서는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군은 90년대말부터 군내부강연회, 정치학습 시간에는 군민관계훼손행위, 무기판매, 자본주의비디오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등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사례를 집중교육하고 있다.²⁰⁾

군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은 군내부에서 범법행위의 심각성과 그들의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선군정치 주역으로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절대적 수단으로 격상되었지만 군민관계훼손행위가 군인의 일상행위로 확대되어 가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일반에 알려진 사실들이다. 특히 무기판매나 자본주의 비디오테이프를 군인들이 유포하는 사례는 군인의 사상도덕적 기강이 해이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를 남겨두고 김정일은 사망했다.

3) 김정은 시대: 군 기강 해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김정은 시대는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게 되었다. 2010년 10월부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공식직함만 갖고 있던 후계자 김정은은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한 권력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우기 위해 북한군 최고통수권자인 최고사령관의 직책을 가장 먼저 부여(2011년 12월 30일)받았다. 그리고 2012년 4월 당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제1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으로 추대되기전까지 약3개월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북한을 통치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군이 체제유지의 핵심보루의 역할을 맡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선군정치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해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래 어떤 체제도 변화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북한의 경우도 지도자의 교체만으로 북한의 정치체제는 물론이고 사회제도가 한꺼번에 변화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를 해왔다. 사회변화와 맞물려 북한군에도 세대교체의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세대가 군병역의 주류가 되었다.

이상의 시대구분을 통해 북한군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았다.

19) 박용진 위의 글, p153.

20) 이화춘 위의 글, p58.

김일성시대에 이어 김정일시대, 그리고 현재의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장악하거나 이양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군대였다. 김일성은 국가 창건보다 군대를 먼저 창건하였고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최고사령관직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장 먼저 이양 받았다. 그 뒤를 이어 김정은도 최고사령관직을 제일 먼저 이양 받았는데 이는 3대 세습 정권을 관통하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고난의 행군’세대의 특징

‘고난의 행군’세대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이 최악의 상황에 달했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거나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현재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혁명1세대와 6.25전쟁에 참가한 혁명2세대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전후세대인 3세대와 신세대인 4세대가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식량난 이후 북한 신세대의 가치관에 상당부분 자본주의 의식이 침투되었고 자본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청소년들은 체제와 이념에 앞서 개인의 삶을 중시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논리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주의, 배금주의, 실용주의적가치와 사고를 배태시키고 있다²¹⁾. 즉 북한청소년들은 외면적으로는 사회주의이념과 생활방식에 배치되는 생각과 행동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젖어들어 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세대들 속에서 중국, 외국 및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비디오나 CD로 보는 행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²²⁾. 이들은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불법녹화물을 통해서 옷이나 머리 스타일을 흉내 낸다거나, 혼자서 말이나 행위를 모방한다거나, 노래를 따라한다거나 등의 비사회주의적 문화와 행동양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불량 녹화물을 통해서 폭력적 행위나 성 행위를 따라하는 등 각종 일탈행동이나 범죄를 모방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²³⁾.

‘고난의 행군’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의 붕괴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조직생활보다 돈 벌이에 익숙한 세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은 온 사회를 조직화하고 주민을 통제하는 나라다. 당원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조직에 망라되어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장사가 성행하면서 엄격한 조직생활이 해이되기 시작했다. 식량난으로 학교교

21) 신호숙 「북한사회의 특성과 북한청소년의 일탈행동」 『아시아교정포럼학술지』 교정담론, 제3권1호, 2009년, p58.

22) 신호숙 위의 글, p38.

23) 신호숙 위의 글, p40.

육이 붕괴하면서 학생들의 출석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학교의 출석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농촌지역의 경우 40%까지 낮아진 지역이 있었다. 현재는 많이 회복된 상태지만 여전히 한 개 학급에 평균 3~4명은 출석을 못하고 있다²⁴⁾. 조직생활과 준군사활동, 학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지나친 세부담으로 인해 학교에 나가지 않는 학생의 수도 늘었다. 경제난으로 학교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서 비공식적인 세금을 걷어 학교를 운영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러한 세외부담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의 할당량을 아이들이 채우지 못하면 부모들이 결국 그 몫을 대신하게 되는데 물건으로 내지 못하면 돈으로라도 과제를 대신하게 된다. 돈 뭇 형편이 안 된 아이들은 벌을 받거나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당하기 일쑤여서 학교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며 나중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지키거나 부모 따라 돈벌이에 나서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다²⁵⁾.

둘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문맹자가 있을 정도로 지적수준이 하락하고 체제충성도가 낮아졌으며 정서가 메마르고 인성이 파괴되어 성격도 잔인해졌다는 것이다. 참혹했던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모든 세대의 의식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신세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²⁶⁾.

북한내부에서도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을 가르켜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로 통칭한다. '육체, 지식, 도덕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이들은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직후 태어나 영유아 시절에는 '영양 및 의료 공백', 10대 시절에는 '교육과 가치관의 공백'을 경험했다. 한편으로는 성장 과정에서 온몸으로 '시장화 현상'을 체험하면서 전세대에 비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강하며 '준법(準法)'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고 지적 받는다²⁷⁾. 생물체계와 사회체계는 모두 환경변화의 정도가 미약하고 점진적일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으나, 충분한 대응기제를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응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²⁸⁾. 따라서 변화된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와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아노미(anomie)가 발생하면서 규범과 가치의 혼란 및 일탈 행동과 사회범죄가 증가하기 쉽다고 한다.

24) 신호숙 위의 글, p51.

25) 또한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사회과제명목으로 여러 일을 시키고 있는데 파철, 파유리, 페비닐, 페지 등을 모으는 것은 기본이다. 학생 한명당 일등품의 토끼 가죽3매, 석탄과 나무 한달구지, 재생학습장을 만들기 위해 마른 오사리5kg, 영예군인전사자돕기 성금300원, 건설장 지원금 100~150원, 군부대지원품으로 달래3kg, 마른 도토리50kg, 마른 살구씨3kg 등 명목도 많고 할당량도 많다. 신호숙 위의 글, p51.

26) 성창권 『고난의 행군 세대의 정치의식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07년, 11p.

27) 「북, 95년 징집 시작...142cm도 현역 판정」 데일리NK, 2012년 4월 1일 기사, 2013년 6월 1일자 검색.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4500&num=94738>.

28) 이인정 「북한 새세대의 가치지향변화」 『한국학술정보지』 2007년, 서론.

IV. 군 신세대 등장 - ‘고난의 행군’세대

경제난으로 시장화에 길들여진 북한의 신세대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고난의 행군’개 인주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치관이 이전의 집단주의 세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중요한 이유는 신세대가 새로운 문화와 사상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세대교체기 때마다 청년세대의 등장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혁명을 승계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중심세력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체제수호와 혁명위업을 계승할 새로운 세대들이 전세대에 비하여 취약한 정치적성향을 보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식량난이후 신세대의 가치관을 분석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북한 신세대의 가치관에 상당부분 자본주의 의식이 침투되었고 자본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이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과 부분적 체제개방으로 인한 외부사조, 문물의 침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 신세대는 전세대에 비해 혁명성이 약하고 도덕관과 윤리관의 해이, 청소년범죄 등과 같은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북한의 사회문화적환경의 변화는 북한청소년의 사상관과 도덕관 및 생활관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혁명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²⁹⁾.

수복지점 (년)	군인 수 (명)	군인비율(%)
		(총노동력대비)
1985	838,000	-
1989	1,040,000	-
1990	1,200,000	10
1991	1,200,000	10
1992	1,200,000	10
1993	1,100,000	9
1994	1,100,000	9
1995	1,243,000	10
1996	1,169,000	9
1997	1,244,000	9
1998	1,244,000	9
1999	1,244,000	9
2000	1,244,000	9
2001	1,271,000	9
2002	1,271,000	9
2003	1,271,000	9
2004	1,295,000	9
2005	1,295,000	9

29) 성장권 위의 글, p4.

2006	1,295,000	9
2007	1,295,000	9
2008	1,295,000	9
2009	1,379,000	10
2010	1,379,000	9

표. 출처: 통계청 자료. 북한 군인 수 및 군인 인구비율 1985~2010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군인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이는 북한의 총 노동력에 대비해볼 때 일정한 퍼센트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중요한 것은 20수년간 군인 퍼센트지를 일정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정한 군인수를 충원하기 위하여 군 입대기준을 조정하는 정책 변화도 시도되었다. 이미 초모연령은 1965년~1972년에는 만 20세 이상이었으나 1972년 이후부터는 만 17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되었다. 초모연령의 하향조정 이유는 전투사상을 조기에 주입하고, 젊은 전투원의 다량 확보, 공민권 부여시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에도 있지만 군인 수를 일정수준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2003년 5월에 개정된 병역법에서 군복무기간을 13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군 입대 신체기준을 키는 150cm-148m, 몸무게는 48kg-43kg으로 하향조정한바 있다. 고등학교 졸업이 17세에서 18세로 1년간 늦춰지면 청소년들의 신체조건이 다소나마 향상될 가능성이 있어 군입대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³⁰⁾, 북한경제가 회복되어 식량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2년에는 군초모 대상이 1995년 출생자들이라는 점과 관련되어 군입대 기준을 142cm로 낮추었다고 한다³¹⁾. 특히 1995년부터 출생률이 뚝 떨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영양상태도 심각하지만 군대 초모대상을 충원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입대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재 북한군의 인적구성은 ‘고난의 행군’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북한군인들 가운데는 ‘고난의 행군’시기 부모가 굶어죽거나 중국으로 탈북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노동당에 입당시키고 간부로 등용하는 문제가 북한군 지도부의 골칫거리라고 한다. 부모가 ‘고난의 행군’시기에 굶어죽었다면 그런 군인들의 가슴속에 원한이 있고, 탈북자 가족의 자녀는 북한이 말하는 계급적원수의 성분이 되어 북한당국이 노동당 가입을 꺼리게 되고 출세의 길이 막힌 본인들은 이를 눈치 채고 극단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교들이 총을 주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³²⁾.

또한 이전세대가 수령과 당의 혜택을 받으며 충성심을 유지했다면 ‘고난의 행군’세대는 수령과 당의 혜택을 교과서에서만 배우고 현실에서는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충성심이 낮다.

30) 칼럼 「북한,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12년제로 전환한 목적은 사회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

통일비전연구회, 2012년 9월 28일, www.uvision.or.kr.

31) 데일리NK 위의 글.

32)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3월 7일.

대표적인 예가 젊은이들의 군대기피 현상이다. 원래 북한에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원이 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었고 사회적 명예와 출세가 보장되는 보증수표와도 같았다³³⁾. 하지만 요즘은 군대에 다녀오고 당원이 돼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10년간 군대에 나가 고생하면서 당원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³⁴⁾. 이밖에도 북한의 새 세대는 군대기피와 함께 제대이후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재산 모으기를 진행한다. 국경경비대군인들은 중국 돈이나 달러를 받고 탈북자들을 넘겨주는 등 기강해이가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다³⁵⁾.

V. 결론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성장한 북한의 신세대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들이 북한군의 주력으로 등장하면서 과거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대기피 현상과 출세의 보증수표라 불리던 노동당 입당에도 무관심하고 혹독한 10년의 군복무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사는 물론이고 도적질에 불법행위까지 하면서 돈 벌이를 한다. 교육의 붕괴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문맹자가 있을 정도로 무지한데다 정서가 메말라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라면 탈영에 살인 등 극단적인 공격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이 북한군 신세대의 특징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세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6월 평양에서 2만명의 조선소년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소년단창립 66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고³⁶⁾ 2013년 6월에는 평양에서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를 개최하는³⁷⁾ 등 청소년세대에 대한 사상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붕괴된 교육시스템을 재건해 교육을 통한 신세대의 사상적 변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를 열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했다³⁸⁾. 12년제 의무교육으로 학교교육기간을 1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성교육, 총포탄 정신교육 시간을 늘리려는 것이다. 시장과 돈에 길들여진 신세대의 사상정신을 수령중심으로 개조해야 하는데 이는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김일성-김정일 위주의 수령교육

33)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이 요구하는 최고의 신랑감은 “군당지도원”이었다고 한다. “군당지도원”이란 군대에 나가 당원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도덕(예의바름)이 있고, 돈이(원:북한 돈의 단위) 많은 남자였다고 한다.

34)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0월 27일.

35) 이호령 「이달의 초점: 북한사회변화와 군-북한에 만연하는 개인주의와 선군정치의 강조로 기강이 해이해지는 북한군」 북한연구소 『북한』 2006년, p40.

36) 『로동신문』 2012년 6월 6일.

37) 『로동신문』 2013년 6월 6일.

38)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김정은 중심의 수령교육을 진행하여 김정은 결사옹위정신을 함양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³⁹⁾. 그리고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초래된 신세대의 발육부진은 군 입대 신체기준의 하향조정 등 군 인력의 질적 하락을 가져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기간을 1년간 연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본주의문화와 가치관에 익숙한 북한군 신세대를 김정은을 위한 총, 폭탄 정신으로 완전히 세뇌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역사의 진보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SNS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21세기정보화 시대에 언제까지 북한이 폐쇄적인 고립통제정책으로 신세대의 눈과 귀를 막을 수만은 없다. 북한에도 소수이지만 컴퓨터와 휴대폰이 보급되고 신세대의 외부문화에 대한 수요와 사회의 진보를 향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역사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북한당국의 구태의연한 통제정책은 점차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39) 통일비전연구회 위의 글.

참고문헌

김광진 「남북한 병역제도의 현황과 통일 후 개선방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비전연구회 『통일세대 상상력의 공간:남북한의 이해와 통일세상 만들기』 2012년.

김병조, 오공현, 「북한군부의 정치적역할변화와 전망」 『정책연구보고서』 97-12,

통권 제279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년.

두병영 『북한군 위상 및 역할의 지속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김일성과 김정일체제의

당·군관계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009년.

박용진 『선군정치가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논문, 2006년.

이교덕, 정규섭, 이기동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1-02.

이화춘 『북한선군정치하 군의 지위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년.

이인정 「북한 새세대의 가치지향변화」 『한국학술정보지』 2007년.

이호령 「이달의 초점: 북한사회변화와 군-북한에 만연하는 개인주의와 선군정치의 강조로

기강이 해이해지는 북한군」 북한연구소 『북한』 2006년.

성창권 『고난의 행군 세대의 정치의식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07년.

신효숙 「북한사회의 특성과 북한청소년의 일탈행동」 『아시아교정포럼학술지』

교정담론, 제3권1호, 2009년.

국회도서관 전자자료 「고난의 행군 정신」 국가정보원, 2009년, 2013년 5월 7일.

「위키백과」 2013년 5월 25일자, <http://ko.wikipedia.org/wiki/%EA%B5%B0%EB%8C%80>

「북, 95년 징집 시작...142cm도 현역 판정」 데일리NK, 2012년 4월 1일 기사,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4500&num=94738>.

「북한,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12년제로 전환한 목적은 사회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 통일비전연구회, <http://uvision.or.kr>.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korean>.

『김일성저작집』 제5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년.

『로동신문』 『조선일보』